

##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안 경 승\*

### 국문초록

논문은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 한편 자명하고 근본적인 물음이지만,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며 그 의의를 올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첫째, 역사적 흐름을 되 짚어보며 복음주의가 무엇인지 추적했다.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 더 나아가 이 운동이 핵심적 가치로 여기는 것을 찾아본다. 둘째, 주로 영미권에서 수용되고 있는 기독교상담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찾아본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이지만 회복하고 발전해야 하는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독특성이 무엇인지 밝힌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확인하고, 그 중에서도 복음전파, 제자화, 죄와 성경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기독교적 치료 가운데,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해야하는 지를 생각한다. 성경적 상담, 기독교 심리학, 통합론적 접근의 이론과 복음주의와의 관련성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모았다. 셋째, 이러한 복음주의적 특징을 회복하기 위한 현재의 여러 노력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하여 과제로 제시했다. 상담자의 영성, 영혼돌봄의 신앙전통에서 자원을 찾기,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보기, 기독교상담의 새 틀 짜기가 논의되었다.

**중심단어 :** 복음주의, 기독교상담, 기독교 심리학, 기독교 세계관, 영성

---

• 논문 투고일: 2012년 10월 3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11월 6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 논문 수정일: 2012년 10월 30일

## I. 여는 글

한국 내의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은 지난 2000년에 한국복음주의 신학회에서 분과학회로 독립한 기독교상담 학회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sup>1)</sup> 학회가 아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주의를 지향하는 목회자, 상담학자, 그리고 학생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3년 하반기 부터 별도의 분과모임을 시작하였고, 매년 2회에 걸쳐 학술지 「복음과 상담」을 발간했다. 번역작업과 함께 『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과 『복음주의 가정상담학』이라는 책 역시 발간하였다. 복음주의적 상담의 방향을 지향하는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0여년의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10년의 세월을 바라보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현 위치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은 무엇인가?’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거기서 도출된 몇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복음주의란 무엇이고 기독교 상담학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현황과 본질적인 요소들을 살펴본다. 둘째, 현재 복음주의 기독교상담과 관련하여 변화가 시도되는 부분과 다루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한다.

본 연구는 영미권의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의 흐름을 살펴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여러 시행착오를 걸친 역사적 결과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한국의 기독교상담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한국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적용을

1) 복음주의 입장에서 기독교상담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다른 기독교 상담 관련 단체, 학회와 개인이 있음을 밝힌다.

하지 못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한국 내의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강의, 커리큘럼, 논문과 저서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한 학생들의 평가와 상담현장에 있는 상담자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역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I. 펴는 글

### 1. 복음주의와 기독교상담

복음주의는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에 중심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보존하고 전파하려는 신학과 신앙이고, 이것이 역동적 운동으로 발전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복음주의는 1세기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친 사도적 복음 신앙이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진 2세기부터 5세기 기간의 교부시대에는 교부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인격이나 삼위일체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기독교 신조의 정립이 이뤄지고 복음적 신앙의 기초가 놓아졌다. 중세시대는 점차 어두워가는 암흑기 속에서도 신실한 신앙인들과 수도원 운동으로 그 명맥을 이어갔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복음에 근거한 신앙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전기를 가져다주었다. 당시 상황은 신앙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바르게 이야기하고 전하는 교회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형편이었다. 이 때문에 복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따로 복음(Evangel)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불러야할 필요가 생겼고,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복음주의자(Evangelical)이다.<sup>2)</sup> 이후 17세기의 청교도 운동과 경건주의, 18세기 영국의 부흥운동과 미국의 대각성운동, 19세기 미국의 무디를 중심으로 한 복음전도 운동과 학생선교운동이 이어졌다.

20세기의 복음주의는 19세기에 만연했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동으로 재점화되었다. 19세기 말에 이르면서 거의 모든 주류 교단 안에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하였다. 복음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며 복음에 대한 재확인을 해야 했다. 계몽주의와 현대주의의 틀 위에 신앙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복음 신앙의 근본 요소들을 재천명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더불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 내에 치료적 접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기독교 내에 치료나 돌봄과도 같은 실천적 사역이 자리를 잡게 하는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한 실천신학자는 **Frederich Schleiermacher**이다.<sup>3)</sup> 그는 신앙의 본질을 복음에 대한 신앙고백에서가 아닌 하나님에게 의존하려는 감정(feeling)에서 찾으면서, 복음 중심에서 인간 감정중심의 신학을 고안하였다.

근대의 문을 연 계몽주의 사상은 인간 이성을 중심에 놓고, 이성이 필요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Michael S. Horton**은 계몽주의가 천국에 도달하는 진보의 탐을 세우려 했으며, 이 진보의 탐은 현세적인 유심론(唯心論)이고 신적 계시나 구속은 물론 하나님도 설 자리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인간 성취의 종교라고 표현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거센 근대화의 사상적 물결 속에서 **Schleiermacher**은 계몽주의를 기독교 신조에 근거해서 이해하기 보다는, 계몽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고 했다. 인간 이성

2) Iain H. Murray, *Evangelicalism Divided*, 김석원 역, 『분열된 복음주의』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0), 21.

3) Murray, *Evangelicalism Divided*, 22-23.

4) Michael S. Horton,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윤석인 역,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2), 247-248.

이 납득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하는 시대사상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간 안에 무엇인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즉 인간 감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감정이 직접적으로 영원한 진리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교리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종교는 교리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느낌, 직관, 경험의 영역이다. 더 나아가 모든 인간 안에 종교적 감각이 있어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이후에 일종의 보편구원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유일성이 포기되고 기독교의 절대성이나 초자연성이 부정되며 자연과 은혜의 구별이 없는 사상이 침투해 갔다. 이러한 영향력 아래 Anton T. Boison은 목회 심리학을 제안하고 임상목회교육(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을 시작하였다. Eric L. Johnson은 이 운동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자유주의 개신교인들은 그들이 영향을 끼쳐보려고 했던 현대주의에 스스로를 적응시켰다.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성경보다 현대 심리학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믿음과 심리학의 관계가 주로 일방향적(one-directional)이었고, 그 결과 믿음은 현대적 가치와 혼합된 새로운 모습으로 형성되었다.…… 목회 심리학 운동에서 나온 학술지의 창립 편집위원회에 Hiltner와 Oates와 함께 Rollo May와 Carl R. Rogers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통 기독교를 일관되게 거부한 Rogers가 여기에 포함된 것은 20세기 전반에 걸쳐 널리 퍼진 자유주의 신학이 당시 문화 내의 현대적 흐름에 얼마나 순응하고 열려져 있었는지를 증명해 준다.”<sup>5)</sup>

자유주의 신학이 학문의 영역만이 아니고 교회와 돌봄의 현장에까지 확산되었고, 그 때 이후 수십 년 동안 목회상담과 돌봄 분야의 책은 주로 자

5) Eric L. Johnson, “A Brief History of Christians in Psychology,” in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ed. Eric L. Johns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0), 26.

유주의적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출간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비로소 복음주의자들이 문화와 학문분야의 기독교적 변혁을 위한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심리학이나 정신의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 기독교상담과 관련해서 복음주의 권내의 두 흐름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화란 계통의 개혁주의(Dutch Reformed tradition) 신학의 입장에서 있던 목회자와 평신도 심리학자들이 1956년에 CAPS(Christian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tudies)를 설립하였다.<sup>6)</sup> 이들의 관점은 종교개혁자 John Calvin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자 Abraham Kuyper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는 화란에 자유대학교를 설립하고 자신의 총장 취임사에서 “우리의 정신세계 중에서 단 한 조각도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부분은 단 한 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역설했다.<sup>7)</sup>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주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 부응하는 학자와 신자들은 지속적으로 사회, 문화와 학문 분야를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 평가하고 변혁하는 일에 매진했다. CAPS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심리학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 연구를 위한 학회로 구성된 것이었다. Daryl H. Stevenson은 이 모임의 설립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한다. “독특하게 구별되는 ‘칼빈주의에 근거한 역동적 심리학’(Calvinistic dynamic psychology)을 주도할 수 있는 독

6) Daryl H. Stevenson, “Introduction: The Nature of Integration and Its Historical Context,” in *Psychology & Christianity Integration: Seminal Works that Shaped the Movement*, eds. Daryl H. Stevenson, Brian E. Eck, & Peter C. Hill (Batavia, IL.: CAPS, 2007), 7–8.

7) Abraham Kuyper, *Abraham Kuyper: A Centennial Reader*, ed. James D. Brat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8), 488. John Piper, *Think: The Life of the Mind and the Love of God*, 전의우 역, 『존파이퍼의 생각하라』 (서울: IVP, 2010), 220에서 재인용.

특한 칼빈주의적 체계를 필요로 했었다. 그 모임의 목적은 그동안 그들이 학교, 병원 그리고 교회에서 적용해 왔듯이, 정신건강 영역에 심대하고 변혁적인 기여를 하는 지성적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었다.”<sup>8)</sup>

둘째, 권면적 상담(Nouthetic counseling)이 기독교계에 미치는 현대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영향과 자유주의신학에 근거한 치료적 접근을 거부하며 Jay E. Adams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권면적 상담은 그 시작부터 몇 가지 핵심 되는 개념을 붙잡고 있었다. 피조 되었고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 인간 자신과 그 삶에 파고든 죄의 비참한 영향에 대한 인식, 점진적 성화에 대한 성경적 관점, 진정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점, 사랑과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매일의 삶에서의 회개와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의 성문화된(inscripturated) 말씀의 충족성 등이다.<sup>9)</sup>

권면적 상담이 복음주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유는 이 모델이 제시하는 상담의 본질적인 전제가 복음주의가 일관되게 붙잡고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복음주의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sup>10)</sup>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 개인적 회심의 필요성, 복음전도의 우선권,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성이다.

같은 맥락에서 복음주의 정체성으로 수용되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sup>11)</sup> 첫째, 회심중심(Conversionism)으로 인간은 거듭나는 경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을 통해서 변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행동중심(Activism)은 선교적 활동과 사회변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8) Stevenson, "Introduction," 9.

9)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0), xvi.

10) Alistair E. McGrath, *Evangelicalism & the Future of Christianity*, 신상길 · 정성욱 역,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58.

11) David W. Bebbington,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A History from the 1730s to the 1980s* (New York: Routledge, 2002), 4.

의미한다. 셋째, 성경중심(Biblicism)은 궁극적인 권위와 진리인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다. 넷째, 십자가중심(Crucicentrism)은 인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강조하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복음주의자들은 그동안의 복음주의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현금의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세속화, 현대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물량주의, 반지성주의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통찰하고 있다. 더불어 현대 심리학과, 대중 심리학을 이용해서 사역하는 지도자, 더 나아가 일부 치료적 접근이 복음주의 교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sup>12)</sup> 핵심 되는 내용은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아중심적 자기 추구나 자기실현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 상담가는 이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기독교상담의 특징과 범주

상담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이 활발하게 시도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상담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학교 내에 이와 관련된 전공이 신설되고, 박사과정의 개설, 학술지와 교과서의 출간, 연구소와 프로그램의 발전, 임상현장의 확대 등이 이뤄졌다. 학문의 발전과 관심의 증가만큼이나 기독교상담의 접근방법과 분야도 다양해졌고, 점차 다음과 같은 흐름들로 확산되었다: (1) 성경적 상담, (2) 기독교 평신도상담, (3) 목회상담, (4) 목회 심리학, (5) 기독교 심리학, (5) 기독교 결혼과 가족교육, (6) 기독교 가정 및 부부 상담, (7) 기독교 가정사역 및 회복사역, (8) 기독교적 가치에 의해서 인도되는 전문심리치료/상담, (9) 기독교

12) David F. Wells, *The Courage to be Protestant: Truth-lovers, Marketers, and Emergents in the Postmodern World* (Grand Rapids, MI.: Eerdmans, 2008), 135-174.

코칭, (10) 영적 지도 및 영성 형성. 또한 상담이 대중화되면서 역기능 가정, 학대, 성인아이 등과 같은 용어가 교회 내에서 보편화되었고, 가정, 양육, 치유, 상담관련 책들이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토대 위에 세워진 여러 분야의 기독교적 돌봄 사역 가운데 '기독교상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기독교상담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둘째, 이 특징에 따라서 기독교상담의 범주를 그려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1960년 이후 기독교가 상담분야에 발을 디디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던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1) 기독교상담의 특징

Tim Clinton과 George Ohlschlager는 기독교상담의 본질을 추적하면서, 고대교부나 종교개혁자의 신앙적 유산을 살펴보았다. 상담이나 심리학이라는 전문 학문이 등장하기 이전에 기독교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Thomas Aquinas는 이렇게 설명한다. “영적인 필요는 두 가지 방식의 영적 활동에 의해서 채워지게 된다. 첫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 . . 둘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가능한데. . . . 가르침에 의해서나 . . . 상담에 의해서 이뤄지는데 여기에는 마음에 교훈을 주고, 실제적 행동에 대한 조언을 하고, 비통한 마음을 위로하고, 변화를 위해서 책망하고 교훈하고, 죄를 용서하며 연약한 자를 관용하는 것이다.”<sup>13)</sup> 종교개혁자 Martin Luther는 죄

13) Tim Clinton and George Ohlschlager, “Competent Christian Counseling: Definition and Dynamics,” in *Competent Christian Counseling*, eds. Tim Clinton & George Ohlschlager (Colorado Springs, CO.: Waterbook Press, 2002), 39–40. 이들의 주로 기독교 고전에서 돌봄적 자원을 찾으려고 시도한 Thomas C. Oden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Thomas C. Oden, “The Historic Pastoral Care Tradition: A Resouce for Christian Psychologis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0, no.2(1992): 137–146.

를 직면하는 것과 책망을 하는데 있어서 균형 있는 방식을 취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러분은 책망하데, 그것이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하는 노력과 함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애정 어린 돌봄을 잊지 않으며 엄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 가운데서 번개를 치시지만 동시에 캄캄한 하늘과 음울한 구름 사이로 열매를 맺게 하는 소나기를 내리십니다.”<sup>14)</sup>

전수된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신조와 기독교상담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논하면서 Gary R. Collins는 기독교상담(기독교 상담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독교상담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려는 시도는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 활용하는 기법이나 기술, 성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 상담자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 깊게 헌신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성령충만)을 받는 사람, 둘째, 사람들이 인격적 온전함, 관계적 능력, 정신적 안정, 그리고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하기 위해, 셋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 기술, 훈련, 지식 그리고 통찰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기독교 상담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웃을 돕고자 최선을 다하는 헌신된 신자이다.”<sup>15)</sup>

기독교상담의 특징을 선별하기 위해 Roger K. Bufford는 10여명의 기독교 상담학자들을 연구했다. 이들이 말하고 실제로 실천한 요소들을 찾아내서 기독교상담의 일곱 가지 특징을 구별하였다.<sup>16)</sup> 첫째, 탁월성의 추구로 상담은 주께 하듯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 상담이 기독교적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기독교 세계관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적 가치를 강

14) Clinton and Ohlschlager, “Competent Christian Counseling,” 40.

15) Gray R. Collins,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1993), 21.

16) Rodger K, Bufford, “Consecrated Counseling: Reflecting on the Distinctives of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no.1(1997): 119–120.

조한다. 상담에 대한 접근방법과 내재된 가치가 기독교 신학에 의해서 안 내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즉 상담의 도구, 목적, 그리고 동기가 성경적 가치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한다. 넷째, 상담자의 개인적 신앙이다. 상담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서, 기독교 세계관이나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다섯째, 상담자의 개인적 소명이 있어야 한다. 자신이 기독교 상담자로 세워졌다는 소명의식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하나님의 속성, 함께 하심, 개입하심이 동반되어야 한다. 기독교상담은 상담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초대하고 인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상담은 단지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고 힘을 부여해 주시는 사역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목케 하심, 성부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관련되어 있다. 일곱째, 영적인 개입과 자원으로, 기독교상담은 기독교 전통에서 추론된 자원(성경, 묵상, 영적 지도, 목회자나 다른 영적 지도자와의 만남, 예배, 교제, 성례, 봉사,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피차에 격려하기 등)이 활용되어야 한다.

반면에 Johnson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Lord)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심리학의 주되신다고 말하며, 이를 하나님 왕국(kingdom of God)이라는 개념으로 풀어간다.<sup>17)</sup> 그는 기독교상담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사역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기독교상담은 인간본성에 대한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과 관계있다는 것, 죄와 유한성이 이러한 진리를 붙잡는 인간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 인간본성에 대한 적합한 이해를 위해서는 성경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시민인 상담자의 사역은 인간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해야 한다고 확언한다.

17) Eric L. Johnson, "Christ, The Lord of Psyc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no.1(1997): 11.

이상과 같은 특징에 더하여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요소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은 복음전파와 제자화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추구한다. 복음주의가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했다면, 그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핵심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모든 회복의 열쇠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것에 달려 있다.<sup>18)</sup> 구원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서 구원을 완성해 간다. 그것이 부정적인 요소의 치유이든 긍정적 영역의 발전이든 기독교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제자화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상담은 내담자가 복음으로 생명을 소유하는 일(구속)과 그 생명이 성장하는 일(성화)을 위한 제자화의 실천적 사역의 한 방편으로 허락되어진 것이다.

Clinton과 Ohlschlager는 기독교상담이 제자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기독교상담이 내담자의 문제와 고통을 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 깊은 믿음, 확신으로 자라가도록 돕기 때문이다. “기독교상담은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지혜를 가지고 한 개인에게 초점을 모으는 제자화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만 한다.”<sup>19)</sup> 제자화 상담을 언급한 Collins는 교회에 근거를 둔 돕는 활동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불러서 감당하게 하시는 제자화를 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한다. “제자화에 대한 강조는 신약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기독교인의 사역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상담이나 돕는 관계를 맺어 가는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sup>20)</sup>

18) Jay E.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9), 177; 김성환, “가정폭력 피해자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요인과 신학적 대안 연구”,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16권(2011): 141-143.

19) Tim Clinton and George Ohlschlager, “Christian Counseling and Compassionate Soul Care,” in *Competent Christian Counseling*, eds. Tim Clinton & George Ohlschlager (Colorado Springs, CO.: Waterbook Press, 2002), 34-35.

20) Gary R. Collins, *How to Be a People Helper* (Wheaton, IL.: Tyndale, 1996), 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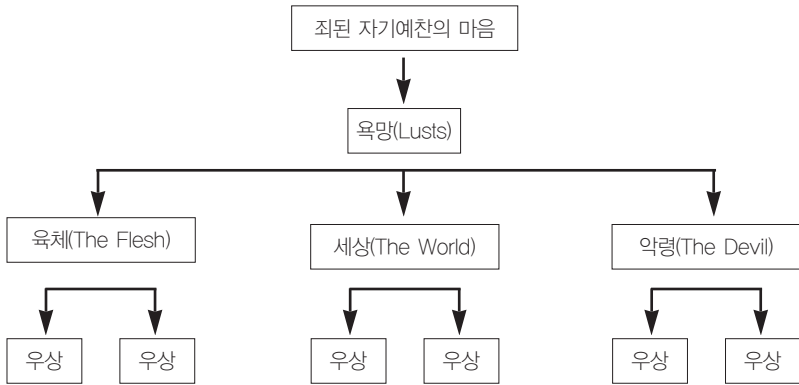
둘째, 죄와 성경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다. 복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사실, 즉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해 절실해 진다. 죄와 관련한 논의는 특별히 성경적 상담이 그 이론과 상담실제 있어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안해 왔다. 초기에는 죄된 삶의 패턴이 고착화되면서 죄된 행동의 습관화와 그에 따른 행동이 부각되었다.<sup>21)</sup> 이후에 외면적 행동의 뿌리가 되는 마음과 ‘마음의 우상’이라는 개념이 죄를 설명하면서 강조되었다.<sup>22)</sup> 인간이 예배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이 숭배를 받으면, 이것이 그 사람의 활동, 관심, 시간, 물질을 포함한 온 삶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Heath Lambert는 인간의 죄된 자기예찬의 마음(The Sinful Self-Exalting Heart)을 문제 삼는다.<sup>23)</sup> 그가 출발점으로 삼은 성경 구절은 창세기 3:5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는 뱀의 유혹을 받으며, 인간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 지금도 인간의 이러한 자기예찬의 마음에서 욕망이 산출된다. 더 나아가 그 욕망이 세상, 육체와 악령의 활동을 통해 흘러나오며 갖가지 우상을 만들어 낸다고 보는 것이다(그림 1).

21) Adams,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160-163.

22) 김준수, “인간 동기의 심리학적 이론과 성경적 이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124; Edward T. Welch,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Phillipsburg, NJ.: P & R, 2001), 47.

23) Heath Lambert,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Wheaton, IL.: Crossway, 2012), 139-148.



〈그림 1〉 우상숭배와 자기예찬의 마음<sup>24)</sup>

성경은 종교개혁자가 그 본래의 위치를 회복시킨 이후 복음주의 운동에서 가장 강조되는 자원이다. 복음주의자는 성경 이외의 다른 권위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성경은 전통과 이성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상담의 최고의 권위이다. 성경은 기독교 상담자에게 사람에게 대해서 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주와 역사에 대한 진정한 진리를 전달해 주는 유일무이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 학문이 말하는 진리는 성경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하고 성령의 지혜에 따라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삶을 변화시키는 포괄적 서술을 담고 있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지혜롭게 나아가도록 안내하기에 충분하다(딤후 3:14-17).”<sup>25)</sup>

기독교 상담자들은 강조점의 색깔은 조금 달라도 성경의 중요성을 동의해 왔다. Siang-Yang Tan은 기독교 치료사가 심리학을 올바르게 통합하고 기독교적 접근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필요로 한다고 본

24) Lambert,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147.

25) David Powlison, “Is the Adonis Complex in Your Bible?”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2, no.2(2004): 43.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하고(Christ-centered),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며(Spirit-led), 성경에 기초(Biblically-based)하고 있어야 한다.<sup>26)</sup> 그러나 성경에 대한 강조가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상담 내에서도 원론적인 차원에 그친 경우가 있고, 실제 상담에 적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구체화되지 못했었다. 여기에 전제된 생각은 성경이 다양한 치료현장의 구체적인 병리현상, 이에 대한 진단, 실제적인 대안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은 원리, 기준, 관점, 진리의 토대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유용하지만, 실제 상담을 위한 충분한 자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음주의 신학자 역시 성경을 과학책으로 보거나 모든 분야의 교과서로 보기 보다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제로 삼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로 본다. 우선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게 말씀하신 성경 만큼 하나님, 인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해 진실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그리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 땅의 일들에 대해 다른 통로를 통해 아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sup>27)</sup>

그러나 Lambert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기독교상담에서 성경을 활용해야 성경의 충족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딤후 3:14-17과 벧후 1:3-4을 근거로 성경의 충족성은 상담의 구체적인 현장과 과정에도 적용된다고 본다.<sup>28)</sup> 그는 일부 기독교 상담자들이 언급하는 성경활용의 한계성에 대한 지적에 반론을 제기하며, 첫째, 성경이 상담에 충족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주는 책이란 의미가 아니

26) Siang-Yang Tan, "Integration and Beyond: Principled, Professional, and Pers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0, no.1(2001): 18.

27) Horton,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98.

28) Heath Lambert, "Introduction: The Sufficiency of Scripture,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nd the Purpose of This Book," in *Counseling the Hard Cases*, eds. Stuart Scott & Heath Lambert (Nashville, TN.: B & H Publishing, 2012), 13-20.

다. 상담사역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분별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성경에서 DSM-IV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심리학적 용어를 찾아볼 없지만, 실제로 같은 문제를 더 깊은 차원에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 셋째, 성경은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경과도 같이 상담사역에서 초점을 모으는데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기독교적 세계관 형성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이 뿌리가 되고 형식이 되어야 한다.<sup>29)</sup> 복음주의가 사회, 문화와 학문의 변혁을 위한 개입을 시도하려고 할 때, 그 방편과 기준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적 삶의 체계를 세워가려는 우리의 노력으로 확산된다.

James W. Sire가 기술한 세계관의 정의에 따르면, 세계관은 하나의 결단(commitment)이고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다.<sup>30)</sup> 하나의 결단이라는 의미는 세계관이 인간 자아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지적 문제만이 아니고 영혼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영적 지향성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Sire는 세계관이 모든 생각과 행위가 흘러나오는 각 사람의 중앙조종실에 해당하는 마음에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sup>31)</sup> 바로 이 마

29) 현상에 대한 설명과 분석의 과정에는 일반학문을 활용하여도, 기독교 상담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경적 관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한숙자,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치유를 위한 기독교 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16권 (2011): 230-244.

30) James W. Sire, *The University Next Door*, 김현수 역,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2004), 24-25. Sire는 세계관이란 “이야기의 형태로 혹은 실재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일관적이든 비일관적이든) 보유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부분적으로 옳거나 완전히 잘못된)로 표현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몸담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결단이요 근본적인 마음의 지향”이라고 설명한다.

31) Sire, *The University Next Door*, 24.

음의 영역을 성경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성경은 마음 안에 지혜(잠 2:10), 감정(출 4:14; 요 14:1), 욕구와 의지(대상 29:18), 영성(행 8:21), 지성(롬 1:21)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을 규정짓는 핵심인 마음이 성경적 관점으로 채워져야 그 지향성이 기독교 세계관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게 된다.

## 2)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범주

앞에서 언급한 복음주의와 기독교상담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성경적 상담은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이 붙잡아야 할 본질적 가치를 상담에 적용시켰다는 점에서 범주의 핵심에 위치한다. Lambert는 Adams의 이후의 성경적 상담운동을 연구하며 네 부분에서 발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다; 성경적 상담자가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상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sup>32)</sup> 또한 성경적 상담이 난해하고 어려운 실제 사례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고, 일종의 기독교 변증적 역할을 수행하며 성경적 상담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sup>33)</sup>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가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와 같은 통합과 관련된 책에 성경적 상담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앞에서 보았듯이 복음주의 운동의 특징 중의 하나가 사회와 학문의 변혁을 추구하는 행동(Activism)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심리학(*Christian psychology*)이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범주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 심리학 운동은 정신의학이나 현대 심리학이 아닌 기독교 자원의 바탕에서 새로운 심리학을 만드는 일에 매진한다. 상담학자만이 아니고 기독교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이 조직한 학회는 그 토대를 복음주의의 교리의 기초가 되는 니케아 신조

32) Lambert,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49-138.

33) Scott and Lambert, eds., *Counseling the Hard Cases*, 25-300.

(Nicene Creed)에 두고 있다.<sup>34)</sup> 이들은 심리학이 근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모든 문화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심리학은 성경(예: 산상설교)과 기독교 전통(예: 교부와 종교개혁자들의 글)에서 시작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sup>35)</sup> 또한 근래에 연구되는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 역시 이를 반추하는 기준이 되는 성경을 활용해서 새롭게 조작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obert C. Roberts는 이렇게 기독교심리학을 설명한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의 심리학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간본성에 대한 서술, 적절한 인격적 특질의 내용과 개념, 왜곡된 모습의 성격, 바람직한 인간관계, 적절하게 또는 적절치 못하게 기능하는 것에 대한 이해, 사람들을 역기능에서 좀 더 발전된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방책과 과정을 포함한다.”<sup>36)</sup> 이 분야의 학자인 Johnson은 어거스틴-카이퍼(Augustinian-Kuyperian)로 이어지는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일반계시의 영역과 통합하는 기독교 심리학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물론 자연주의적 세계관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해서 과학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 고안물이 나와야 한다. 그는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개인과 공동체의 극대적 통합(maximal integration)을 말하는데, 이는 ① 현대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고, ②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③ 기독교 공동체와 개인을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며, ④ 이론, 과정, 실제에 적용되는 가능한 한 최대한도의 신앙과 심리학의 통합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sup>37)</sup>

34) [http://christianpsych.org/wp\\_scp/about-the-society/](http://christianpsych.org/wp_scp/about-the-society/).

35) Robert C. Roberts and P. J. Watson, “A Christian Psychology View,” in *Psychology & Christianity*, 149–150.

36) Robert C. Roberts, “The Idea of a Christian Psyc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0, no.1(2012): 38.

37) Eric L. Johnson, “The Three Faces of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30, no.4(2011): 339.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외연을 이루고 있는 접근은 통합론(Integration view)적 흐름이다.<sup>38)</sup> 이들이 기독교 심리학과 같은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현대 심리학 문헌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학문 간의 통합을 주장한다.<sup>39)</sup> 이러한 접근이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에 기여하는 바는 첫째, 이들 대부분이 현대 심리학의 영향 아래 교육을 받고, 자신들이 배운 학문과 실제의 전문성을 심화하는 가운데, 현대 심리학과 대화하고 치료현장에서 종교적 역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작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점이다.

개혁주의 신학자 Kuyper는 ‘영역주권’의 개념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소명의 영역 안에서 그 내적 원리에 따라 활동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영역 주권이란 예술, 과학, 교육, 학문, 가정, 교회와 각각의 삶의 영역들이 그 자체의 고유한 성격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보는 것이다. 과학이나 예술이 타락 이전에 부여된 선물이고 일반은혜의 범주 안에서 원리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각각의 영역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각자의 기능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sup>40)</sup> 이런 맥락에서 Horton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인간의 왕국을 분명하게 구별하면서도 두 왕국 모두를 건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sup>41)</sup> 통합론자들이 비록 기독교상담의 특징에 부합한 모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상담자로서 인간의 왕국의 한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복음주의 신앙 안에서 믿고 아는 것이 자신이 연구하는 학문영역

38) Stanton L. Jones, "An Integration View," in *Psychology & Christianity*, 101-128.

39) Johnson, "A Brief History of Christians in Psychology," 34-35.

40) Abraham Kuyper, *Wisdom and Wonder: Common Grace in Science and Art*, trans. Nelson D. Kloosterman (Grand Rapids, MI.: Christian Library Press, 2011), 45.

41) Michael S. Horton, *Beyond The Culture War*, 김재영 역, 『세상의 포로된 교회』(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1), 135.

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시도한 것이다. 즉 일반 상담과 기독교상담 활동을 분리된 영역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관련성을 고민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한다.<sup>42)</sup> 이 결과물이 교육과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는 심리학의 전제와 방법론으로 훈련 받은 기독교 상담자들에게 적잖은 유익을 주고 있다. 또한 심리학의 결과물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인본주의적 영향력을 분별하는 비판적 연구도 찾아보게 된다.

이것이 필요한 것은 정신건강 계통과 관련된 분야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학문이나 자연과학의 분야와는 다르게 현대 심리학은 너무 자주, 그리고 적잖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 고유한 영역의 경계를 넘어 인생의 의미, 가치와 방향까지 설명하려고 한다. 일종의 종교가 되어버렸고, 복음주의 내에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다시 성경의 진리가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심리학과 사회학이 판칠 것인가?”<sup>43)</sup>라는 비판까지도 가져오게 했다.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상담자는 이를 분별하고 세속화의 물결이 심리학을 통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과제와 논의

여기서는 현재 기독교상담과 관련된 변화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서 앞에서 언급한 복음주의적 독특성을 기독교상담 내에 뿌리내리기 위해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살펴본다.

---

42) 대표적인 책들로 Stanton L. Jones and Richard E. Butman, *Modern Psychotherap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이관직 역, 『현대심리치료와 기독교적 평가』 (서울: 대서, 2009); Mark A. Yarhouse and James N. Sells, *Family Therap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전요섭 · 한숙자 · 변영인 · 김영희 역, 『기독교 가족치료』 (서울: CLC, 2010); Mark A. Yarhouse and Richard E. Butman, *Modern Psychopathologies: A Comprehensive Christian Appraisal* (Downers Grove, IL, : InterVarsity Press, 2005)이 있다.

43) David Wells, *No Place for Truth*, 김재영 역, 『신학실종』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13.

첫째,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의 영역이었던 영성과 상담의 관계가 변형 심리학(transformational psychology)의 접근으로 체계화되고 있다.<sup>44)</sup> 이 분야는 크게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론적 통합 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상담자가 어떻게 자신의 인격, 윤리, 경험 더 나아가 영성을 현장에서 통합해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상담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고 실천적 도구가 되는 것은 상담자의 개인적 소명, 상담과정에서의 하나님의 현존과 일하심에 열려있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 돕는 사역에의 헌신, 성품 등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을 학문 분야에서 제안한 사람은 Newton H. Malony 이었고, 표현은 달리해도 기독교 학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었다.<sup>45)</sup> Tan은 특별히 상담자의 영성이 상담에 있어서 밀바탕이 되고 모든 상담과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sup>46)</sup> 그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 상담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진정한 기독교 상담자로 사역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성경이나 기도와 같은 영적 자원을 활용한 영혼돌봄과, 영성 형성의 접근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상담의 대상인 내담자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을 인식하고, 영성 형성의 도구를 활용할 준비가 된 상담자가 치유와 그 이상의 영혼돌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한 상담적 방법론을 찾는 가운데 영혼돌봄의 역사적 전통을 추적해서 재발견한 영적 지도가 연

44) John H. Coe and Todd W. Hall, "A Transformational Psychology View," in *Psychology & Christianity*, 199-226.

45) H. Newton Malony, "Integration: The Adjoiners," in *Psychology and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 ed. Gary R. Collin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1), 85-123.

46) Siang-Yang Tan, "Principled, Professional, and Persona Integration and Beyond: Further Reflections on the Past and Futur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0, no.2(2012): 148.

구되고 있다. 영적지도는 “한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돕는 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이러한 교제 가운데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자라가고 그 관계의 열매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sup>47)</sup> 기독교상담 학자인 Gary W. Moon과 David G. Benner는 영적 지도와 심리치료, 목회 상담 간의 유사성과 상이성, 윤리적 측면 등을 분석하며, 상담의 초점이 내담자의 왜곡된 부분(abnormal)을 정상(normal)화 시키는데 있는데 반해서, 영적 지도는 그 이상의 영적 성숙과 변화로 나아가게 하는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본다.<sup>48)</sup>

일반 상담학 내에서도 영성과 신앙에 근거한 접근방법이 연구되며, 이것이 정신건강 계통의 다섯 번째 흐름이라고까지 평가되고 있다.<sup>49)</sup>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 대한 정당하고 당연한 관점의 전환이라고 평가된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되어질 때 그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이고 온전한 변화가 이뤄진다. 이것은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역사를 통해 시도하고 열매를 맺은 부분이고, 이러한 역사적 자원을 기독교상담에 적용해서 영혼돌봄의 한 방편으로 삼는 것은 필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모호하고 혼돈스러운 의미로 영성이 대중화 되고 종교를 대체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기독교상담과 통합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영성과 영성 훈련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가 요구된다.

둘째,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통해 상담과 심리학을 분석하고

47) William A. Barry and William J. Connolly, *The Practice of Spiritual Direction* (San Francisco, CA, : Harper & Row, 1982), 8.

48) Gray W. Moon and David G. Benner, “Spiritual Direction and Christian Soul Care,” in *Spiritual Direction and the Care of Souls*, eds. Gray W. Moon & David G. Benner (Downers Grove, IL, : InterVarsity Press, 2004), 22–23.

49) Tim Clinton and Gary Sibcy, “Christian Counseling, Interpersonal Neurobiology, and the Futur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0, no.2(2012): 141.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의 필요성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와 관련된 연구와 저작들이 출판되고 있다. 관련된 서적의 번역만이 아니고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와 그 결과물을 필요로 한다. 이는 기독교상담을 공부하고 접하는 다음 세대와 복음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이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인간본성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연구, 기독교적 주제(죄, 용서, 구속, 공동체 등)의 상담적 적용, 병리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 가정의 회복을 위한 기독교적 접근, 기독교상담의 상담과정 연구, 통합에 대한 연구, 특히 신경생리학, 뇌과학, 다문화, 긍정심리학과 같은 주제의 평가와 적용 등이 포함된다.

셋째, 복음에 진정한 중심을 둔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체계화와 임상적 결과를 필요로 한다. 성경적 상담학과 기독교 심리학이 시도하는 기독교상담의 틀을 성경 위에 세우고 새롭게 정립하는 일을 위해 기독교 상담자들과 여러 복음주의 사상가와 신앙인의 동참을 필요로 한다. 복음적 돌봄 활동의 결과가 쉽게 그리고 단기간에 나오지 않으며, 그런 결과 중심의 사역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더구나 기독교상담은 단기간의 결과로 측정하기 힘든 영성과 성화를 포함하는 통전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상담의 탁월성과 유용성을 증명하는 연구와 임상적 결과가 더 풍성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

### III. 닫는 글

본 논문은 복음주의 권내의 돌봄 사역의 한 방편으로 자리 잡은 기독교상담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답을 찾으려 했다.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상담을 기독교적하게 하는 요소들이 드러났지만,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이 무엇이나라는 물음과 관련지어서는 조금 더 추적이 필요하다고 본 것

이다. 우선 복음주의 신학 내에서도 복음주의를 누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차이가 존재한다. 적잖은 교단과 개인이 속해서 하나의 연합운동적 성격으로 발전한 복음주의가 그 성격을 논하는데 의견이 갈라지고, 이제는 여러 갈래의 복음주의 흐름을 당연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그 만큼 정체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언급하였듯이 계몽주의와 함께 폭발적으로 발전한 ‘인간에 대한 연구’가 교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긍정적 요소도 있었지만, 그동안 돌봄과 관련해서 복음주의 교회가 매진하며 결실을 맺어 왔던 부분들이 무엇인지가 모호해 졌다. 현대인이 이해하는 전문용어로서의 상담은 사회 속에서 활용되는 학문과 실제로 출발했고, 이것이 교회 내의 사역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기독교상담의 설 자리가 없어져 갔다. 기독교 계통의 학교나 센터에서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기독교의 색깔을 지워가는 추세도 발견한다. 일반 상담적 능력과 자격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신앙과 일의 구분이 더욱 심해지는 듯 하다. 오히려 종교와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상담이 무엇인지 질문하지만 답이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시 질문하게 된다. 상담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일반학문과 교류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돌봄, 더 나아가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고수해온 요소들을 찾고,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에서 복음주의가 어떻게 이해되는지 밝히는 작업을 하였다.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선별했고, 이러한 복음적 터전 속에서 상담을 발전시켜온 기독교 상담학자들의 상담에 대한 입장을 도출해 보는 작업을 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하고 있는 상담이 기독교상담인지, 더 나아가 복음주의적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별히 성경적 상담, 기독교 심리학, 통합론적 입장에 대한 복음주의적 가

치를 찾아보았다.

정리한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현재에 대한 평가라면,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살리고, 변화를 도모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교회 내에 뿌리 내린 치료적 접근의 장단점에 대한 복음주의 권내의 평가와 비판은 이러한 변화에 좋은 자극으로 작용한다. 복음주의적 전통과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 위에서 새로운 기독교상담의 체계가 세워지는 일을 소망한다. 또한 다방면으로 접하게 되는 상담관련 자료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적용 역시 감당해야할 영역이다. 이러한 과제를 풀어가는 가운데 오는 세대에 복음주의 기독교상담이 교회와 세상에 필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 김성환. “가정폭력 피해자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요인과 신학적 대안 연구”.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16권(2011): 126-150.
- 김준수. “인간 동기의 심리학적 이론과 성경적 이해”.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106-130.
- 한숙자.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치유를 위한 기독교상담적 접근”.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16권 (2011): 225-249.
- Adams, Jay E.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0.
- Adams, Jay E. *A Theology of Christian Counseling*.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9.
- Barry, William A. and William J. Connolly. *The Practice of Spiritual Direction*.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1982.
- Bebbington, David W. *Evangelicalism in Modern Britain: A History from the 1730s to the 1980s*. New York: Routledge, 2002.
- Bufford, Rodger K. “Consecrated Counseling: Reflecting on the Distinctives of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no.1(1997): 111-122.
- Collins, Gray R.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1993.
- Collins, Gray R. *How to Be a People Helper*. Wheaton, IL.: Tyndale, 1996.
- Clinton, Tim and George Ohlschlager, eds. *Competent Christian Counseling*. Colorado Springs, CO.: Waterbook Press, 2002.
- Clinton, Tim and Gary Sibcy. “Christian Counseling, Interpersonal Neurobiology, and the Futur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0, no. 2(2012): 141-145.
- Horton, Michael S. *Beyond The Culture War*. 김재영 역. 『세상의 포로된 교회』.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1.
- Horton, Michael S.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윤석인 역.

-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2.
- Johnson, Eric L. “Christ, The Lord of Psyc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5, no.1(1997): 11-27.
- Johnson, Eric L., ed.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10.
- Johnson, Eric L. “The Three Faces of Integration.”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30, no.4(2011): 339-355.
- Kuyper, Abraham. *Wisdom and Wonder: Common Grace in Science and Art*. trans. Nelson D. Kloosterman. Grand Rapids, MI.: Christian Library Press, 2011.
- Lambert, Heath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Wheaton, IL.: Crossway, 2012.
- Malony, H. Newton. “Integration: The Adjoiners.” In *Psychology and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 ed. Gary R. Collins.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81, 85-123.
- McGrath, Alister E. *Evangelicalism & the Future of Christianity*. 신상길 · 정성욱 역. 『복음주의와 기독교의 미래』.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Moon, Gray W. and David G. Benner, eds. *Spiritual Direction and the Care of Soul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4.
- Murray, Iain H. *Evangelicalism Divided*. 김석원 역. 『분열된 복음주의』.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0.
- Piper, John. *Think: The Life of the Mind and the Love of God*. 전의우 역. 『존 파이퍼의 생각하라』. 서울: IVP, 2010.
- Powlison, David. “Is the Adonis Complex in Your Bible?”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2, no.2(2004): 42-58.
- Roberts, Robert C. “The Idea of a Christian Psycholog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0, no.1(2012): 37-40.
- Scott Stuart and Heath Lambert, eds. *Counseling the Hard Cases*. Nashville, TN.: B & H Publishing, 2012.
- Sire, James W. *The University Next Door*. 김현수 역.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서울: IVP, 2004.
- Tan, Siang-Yang. “Integration and Beyond: Principled, Professional, and

Pers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20, no.1(2001): 18-28.

Tan, Siang-Yang. “Principled, Professional, and Persona Integration and Beyond: Further Reflections on th Past and Futur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40, no.2(2012): 146-149.

Welch, Edward T.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Phillipsburg, NJ.: P & R, 2001.

Wells, David F. *No Place for Truth*. 김재영 역. 『신학실증』.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6.

Wells, David F. *The Courage to be Protestant: Truth-lovers, Marketers, and Emergents in the Postmodern World*. Grand Rapids, MI.: Eerdmans, 2008.

[http://christianpsych.org/wp\\_scp/about-the-society/](http://christianpsych.org/wp_scp/about-the-society/).

【 Abstract 】

##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Evangelical Christian Counseling

**Kyung Seung Ahn**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This article seeks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the Evangelical Christian counseling?” Although the question seems to be obvious and theoretical, it will be a meaningful pursuit in order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the Evangelical Christian counseling, keep its identity and restore correctly its significance. The first focus is upon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evangelical theology, evangelical faith, and core values of the movement. Second, the article exams the definition and distinctives of Christian counseling accepting in the Anglosphere. It gives us far more clear understanding of the features of the Evangelical Christian counseling which need to be built and recovered today. In addition to the precedent study on this topic, evangelization, discipleship, sin, and the Scripture are emphasized. After setting up the category of the Evangelical Christian counseling, the article focuses more specifically on the relationship of Biblical counseling, Christian psychology, and integration view to evangelicalism. Third, the article suggests some areas of research and practice related to building up the Evangelical Christian counseling. And then, it discusses Christian counselor’s spirituality, spiritual resources from Christian sour care tradition,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several topics from a Christian world view, and new framework of Christian counseling.

**Key words:** evangelicalism,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psychology,  
Christian world view, spirituality